



<노동시장개혁 이슈 리포트 ⑩>

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실태는 어떠한가?

- 통계청이 2015년 8월에 실시한 ‘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’에서 비정규직은 627만명(임금노동자의 32.5%)이고 정규직은 1,304만명(67.5%)으로, 전체노동자의 1/3이 비정규직임.

<비정규직 근로자 규모>

	2014. 8		2015. 8	
	인원수	구성비	인원수	구성비
전체 임금근로자	18,776	100.0	19,312	100.0
○ 정 규 직	12,699	67.6	13,041	67.5
○ 비정규직	6,077	32.4	6,271	32.5
- 한 시 적	3,508	18.7	3,638	18.8
- 시 간 제	2,032	10.8	2,236	11.6
- 비 전 형	2,112	11.2	2,206	11.4

- 비정규직 가운데서 특히 시간제 근로자가 크게 늘었음. 시간제 근로자는 224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 명(10%)이나 증가했음. 근로 기간이 한정된 한시적 근로자는 364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3천 명(3.7%) 늘었으며, 파견·용역·특수형태 근로자와 가정 내 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비전형 근로자는 214만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 4천 명(4.5%) 늘었음.
-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를 직업별로 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195만 5천명(31.2%), 서비스·판매종사자 148만 7천명(23.7%), 관리자·전문가 110만 5천명(17.6%) 순으로 높았음.
-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령계층별 비중은 청년층(15~29세) 20.9%, 중장년층(30~59세) 58.1%, 노년층(60세 이상) 21.0%로 나타났음. 성별 비중은 여자(54.0%)가 남자(46.0%)보다 8.0% 높았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이 275만 6천명(44.0%)으로 가장 많았음.

- 주당 평균취업시간을 살펴보면 한시적 근로자는 36.6시간, 시간제 근로자는 20.1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각각 1.0시간, 0.4시간 증가한 반면, 비전형 근로자는 38.0시간으로 0.4시간 감소하였음.
- 2015년 6~8월 기준 월평균임금은 정규직 근로자가 269만 6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만 2천원(3.5%) 증가하였고, 비정규직 근로자는 146만 7천원으로 1만 4천원(1.0%) 증가하는데 그쳐 임금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음.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는 한시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162만 9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, 비전형근로자는 150만 6천원, 시간제근로자는 70만 5천원이었음.
- 정규직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82.0%, 건강보험에 84.8%, 고용보험에 82.4% 가입하고 있는데 비해, 비정규직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36.9% 건강보험에 43.8%, 고용보험에 42.5%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,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.
- 임금근로자의 18.2%는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가입 가능자의 67.6%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.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4.6%에 불과했는데, 이중 가입한 비율은 62.3%로 전년 동월 대비 0.9% 증가하였음.

<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>

(단위: %)

	2014. 8				2015. 8			
	가입가능자		가입대상 아님	노동조합 없음	가입가능자		가입대상 아님	노동조합 없음
	가입	미가입			가입	미가입		
임금근로자 전체	12.5	6.0	7.9	73.6	12.3	5.9	7.8	74.0
○ 정 규 직	16.9	7.9	5.8	69.4	16.9	7.9	5.7	69.5
○ 비정규직	3.1	2.0	12.5	82.4	2.8	1.7	12.1	83.3
- 한 시 적	4.6	3.1	17.6	74.7	4.3	2.6	16.7	76.3
· 기 간 제	4.2	3.2	20.4	72.2	4.6	2.8	19.7	72.9
· 비기간제	6.3	2.7	7.4	83.6	3.5	1.9	5.6	88.9
- 시 간 제	0.9	0.9	13.4	84.8	0.5	0.8	13.4	85.3
- 비 전 형	1.4	0.7	6.8	91.1	1.4	0.5	6.4	91.7

【참고자료】

통계청, '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' 2015.11.04. 발표
 김유선,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, KLSI 이슈페이퍼 2015년 제7호